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제6학기 목회자세미나

오는 9월 첫 주부터 10주간, 매주 월요일

『경건과 교양』을 주제로 로마서 강해와 고전 연구

한국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신학세미나가 오는 9월 5일(월)에 제 6학기 강의를 시작한다.『경건과 교양』이라는 주제로 개설되어 10주간 계속될 이번 학기의 강의 내용은 1교시는 제 5학기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다이아몬드라 일컫는 로마서를 강해형식으로 연구하고, 제 2교시는 서양 고전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제 6학기의 2교시 강의는 세계사에 흐름을 주도해 온 동서양의 존재들에 의해 작성된 고전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섭렵함으로써 목회자들의 시각과 목회의 폭을 풍성케 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간 한국교회의 갱신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온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는 5학기의 목회자세미나를 계속해 오는 동안 연인원 3,500명의 목회자가 등록하였고 매학기 경향각지로부터 700여명의 목회자가 매학기 목회자세미나에 참가하여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 기도하며 공부하고 교제해 왔다.

제 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경건과 교양』

일시	제 1 교시 14:00 - 15:30	제 2 교시 15:50 - 17:20
9/5	로마서강해 이 중 윤 목사 (서울교회)	신의 도성 - 어거스틴 - 한태동 박사(연세대)
9/12		광세 - 파스칼 - 이 환 박사(서울대)
9/26		실락원 - 밀튼 - 조신권 박사(연세대)
10/10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 - 칸트 - 손봉호 박사(서울대)
10/17		존재와 시간 - 하이데거 - 이규호 박사(전 교육부 장관)
10/24		죽음에 이르는 병 - 키에르케골 - 김형석 교수(연세대)
10/31		대 교수학 - 코메니우스 - 박성수 박사(서울대)
11/7		시간의 역사 - 스티븐 호킹 - 정근모 박사(전 과학기술처 장관)
11/14		프로테스탄트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막스 웨버 - 전성우 박사(한양대)
11/21		역사의 연구 - 토인비 - 이원철 박사(전 한남대 총장)

'94 하반기 장학생 선발

- 8월 14일까지 사무국에 신청 -

천국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장학회(회장: 이남호 장로)에서는 '94년 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부서 지도교역자와 부장 혹은 교구담당교역자의 날인을 받은 추천서를 성적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8월 14일(주일)까지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우리의 여름

☞ 의료봉사, 축조전도, 성경학교 개척 등 각양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농촌전도단

☞ '가정의 천국화'를 생각해 본 수련회 (폐회예배)



창세기
강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세기 12장 1 ~ 3절)

이종운 목사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모든 기사의 초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12장의 시작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되기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일곱가지의 언약을 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을 할 것이다(I will-~)”라는 말씀을 일곱번 반복하시며 귀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1. “내가 땅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처음과 마지막이 땅에 관련된 것입니다. 첫번째 약속은 미지의 땅을 보여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며 마지막 일곱번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서 지역적인 지적이기도 하지만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 중 팔복도 처음과 나중에 동일하게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 5:3, 10).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곱가지 축복과 산상보훈 중 팔복의 시종이 ‘땅’과 관련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은 천국을 약속하신 것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은 당시 75살의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며 비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래는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롬 4:18). 아브라함은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통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복까지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속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13:2).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선행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긴 했으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체하기도 했고 애굽왕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한 비겁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룰 그의 자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에게 재물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이루라고 개개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은 BC 2000년 경 사람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인물인데 유대인 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 심지어 모슬렘교도들까지도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모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역사상 최대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땅에서도 존귀함을 받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요”

6.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두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 힘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에 대한 약속을 이루심은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가 바울을 처형했고 베드로를 순교시켰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당대에는 그들이 이긴 것 같고 순교자들이 패한 것 같아 보였으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편에 선 자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들의 종말은 멸망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는 사람은 그 복이 자기에게도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없이는 한 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서로 복을 빌어 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7.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25년만에 이사를 얻으나 땅은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야 그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죽은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쉬임없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되시니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던 언약과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세월을 아끼라

크리스토퍼 말로위의 ‘닥터 파우스트’라는 희곡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주기에 충분한 전율을 일으킬 만한 작품이다.

닥터 파우스트는 24년동안 악마를 자기 종으로 부린 후 그 기간이 끝나면 악마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요구하기로 협상을 맺었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시간이다. 시간이 긴 것 같으나 한정된 시간은 초조 쫓듯 다가오고 있다. 그가 협상한 시간은 결국 비극을 불러낸 것이다. 예와 별은 쉬임없이 움직이고 시간도 지나가고 세월도 흘러간다. 파우스트가 후회해도 이미 물릴 수 없는 계약 때문에 그는 악마에게 끌려갈 날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두려워 떨고 있다.

이 작품의 저자는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다. 인간이 악마와 협상하여 깨칠 수 없는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비를 몰고 오는 하나님의 천사들”

최 형 열(집사·70인전도단원)

유난히도 가뭄이 모두의 마음조차 메말랐었던 올 여름. 그런데 전도지에서 우리 전도팀에게 붙여진 별명은 “비를 몰고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강의면을 처음 방문하던 6월 30일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고, 2차 방문일인 7월 21일에도 가뭄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그곳에 비가 내렸으며, 전도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8월 1일에 또한 비가 내렸으니 그들 눈에는 우리가 그리 보였나 보다.

그들이 붙여준 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했다. ‘그렇다! 성령의 단비를 이 만수리 땅에 오게 하자! 메마른 심령마다 회개의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도록 새생명을 얻게 하자!’

도착한 첫째날 오후 12시 40분. 먼저 기도로 무장하고 2~5명씩 짝을 지어 7팀을 만들고 봉고를 타고 가다가 궁평마을, 만수 1·2구, 쌍정, 상정리, 공북리, 연제리를 돌면서 차례대로 내렸다. ‘그림없는 책’, ‘사영리’, ‘손가락 복음’ 등 70인 전도훈련때 배운 방법을 총동원하였다. 우리의 어리석은 말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을 믿으며...

비가 내리니 농민들은 대부분 일손을 놓고 집에서 쉬고 있었기에 축호전도하기가 좋았다. 더구나 주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놓으셨기에 잘 전할 수 있었다. 한 전도대원은 문을 열고 들어서려 할 때 뱀이 나타나 소동이 벌어졌고 문전박대를 당했으나 집요하게 안방까지 들어가 결국은 복음을 전했다는 보고를 하기도 했다. 또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아랑곳하지 않고 줄줄이 들어서는 여호와 증인인줄 알고 문을 닫는 주민이 있었는데 마침 은성교회 교인이 나타나 우리 팀을 소개하고 나서야 안심한 듯 집으로 불러들인 일이 있어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일도 필요하겠다는 첫날의 평가가 있었다.

둘째날에는 덕골, 장작골, 호계, 향교평, 대비 등의 마을로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축호전도를 나갔다. 짧은 일정에 오늘이 아니면 안된다는 일념으로 나아갈 때, 낮에 해가 상처 못하도록 하늘에는 구름이 가려 있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 은성교회로 돌아가는 봉고차와 약속한 시간을 어기면서까지 오후 7시가 넘도록 전도활동이 계속 되었다. 기다리느라 애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대원들의 열의와 노고에 박수로 격려해 준 동료대원들. 둘째날 전도활동 중 환자 셋을 만났는데 그 중 한 사람은 등에 얹혀서 기도하며 침을 맞고 일어섰다. 올때에는 굶어 있었던 손으로 박수를 치며 돌아왔다. 또 한 사람은 1시간 30분이나 전도하니 회개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했다. 사도행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았다.

셋째날, 그간의 피로가 누적된 채 있었지만 마지막 날이라는 급박한 생각이 모든 피로를 삼켰다. 더운 날씨에 또 한번의 비를 기대할 때 즈음, 한바탕 비가 스쳐갔다.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집으로 몰아 넣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졌다. 다시 일곱팀으로 나뉘어 비를 피해 집안에서 기다리는(?) 주민들을 향하여 나갔다. 회사를 결근하고 오신 집사님, 전도훈련 받은 것을 충실히 실행했다는 여집사님, 용기와 영혼 사랑, 신유의 은사가 절실했다는 전도대원의 보고를 들으며 우리의 열심과 지혜가 있어도 기도 외에는 다른 능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우리의 무익한 수고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될 것이라는 한 권사님의 말씀에 우리는 기쁨으로 ‘아멘!’ 하였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 식사 때마다 영양을 공급해 주신 이권사님의 노고와 손맛을 전도대원들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매일 저녁 전도집회(부흥회)에는 150명을 전후한 기록적인 수의 주민들이 교회로 모였었다. 예상 밖의 일이었다. 또한 동네 잔치에는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75명이나 되었고 한방과 침술로 한 의료봉사와 간증집회, 찬양의 시간 등에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여기 저기서 부채를 들어보이며 기뻐하던 주민들을 보며 전도대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장년들이 축호전도를 하는 동안 대학부 학생들의 헌신적인 봉사 속에 여름성경학교가 한치의 착오없이 착착 진행되었다. 메시지와 울동이 이어질 때 어린이들은 즐거움으로 가득했고 무엇보다 인기를 끈 것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구성한 인형극이었다. 극기훈련의 하나인 ‘천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은 농촌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줄 수 있었고 미니올림픽은 마음껏 뛰노는 가운데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린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고심하던 어느 집사님의 배려로 모든 어린이들에게 예쁜 티셔츠를 선물할 수 있어서 우리 모두가 흐뭇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무익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의 귀에 들려지도록 하셨다. 이제 뿌려진 씨앗이 결실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며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이 복음 만민이 듣도록’ 외치는 일을 더욱 힘쓰리라고 다짐해 본다.

항상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김 선 미(권사)

다른 곳으로 전도를 떠나려 했던 내 계획이 바뀐 것은 지난 주일 파송식 예배 때였다. 우연히 파송받을 전도단의 대열에 앉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밀리듯 내 계획을 변경하고 농촌전도단에 합류하게 되었다. 첫날, 축호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폭풍우에 속까지 흠뻑 젖은 온몸을 닦을 때까지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독특한 은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곳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기에 만나보니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머문 은성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그 교회 뿐 아니라 우리 서울교회를 위한 또 다른 비전과 기도제목을 찾아 기도하게 되었다.

은성교회 소정의 목사님은 육군 중령으로 제대하신 후 여러가지 사업에 거듭 실패하시고야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순종하셨고, 2년 반 전에 은성교회에 부임하셨다고 한다. 40년된 교회로 장년만 40명인 교세에 19평의 창고와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며 성전건축을 위한 대지를 구입하고 보니 바로 옆 700평이 국유지였다. 돌산을 바라보며 그 돌산을 옮겨 성전을 짓게 해 달라고 40명의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했고, 그 때에 고속철도 건설작업이 파업으로 중단되어 3개월간의 파업기간동안 그곳 신우회의 도움을 얻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기도한 그대로 산의 돌이 부셔져 교회 마당을 매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일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동역하는 일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기도한 자들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도 40명의 눈물의 기도로 한 교회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오는 15일에 입당예배를 드리는 은성교회 성전 건축의 뒷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안락함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일들을 놓고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전가족 수련회에서 은혜 때문인지 많은 부부가 함께 파송받아왔고 무엇이나 조금이라도 더 나누려고 애쓰는 모습들, 몸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젊은 전도단원들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과 자원들이 많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 기간이었다. 처음으로 파송된 전도단을 통한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 맺혀지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세미나도 이제 곧 제 6학기를 맞이한다는데 어서 속히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합심하여 기도해야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항상 함께 하시며 예기치 못한 은혜로 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부인이 있다. 나이 40을 넘어서면서 다른 이
들처럼 아기가기하게 살고 싶지만 남편은 도무지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하면 남편의 관
심을 끌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부인은 헤어스타
일을 한 번 바꾸어 보기로 했다. 그러면 남편이 좀
달라지겠지 기대를 했는데 귀가한 남편은 아내가
머리 모양을 바꾸었는지 안 바꾸었는지 도대체가
관심이 없다. 속이 상한 아내가 “이렇게 무심할 줄
몰랐다”며 울먹거리자 남편이 잘못을 깨닫고는
아내를 위로했다. “그래,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야.”

그러나 그 때 뿐이지 일에 바빠진 남편은 아내
를 거들떠도 안 보았다. 아내가 이제는 포기하기
로 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다가 다시 머리 손질
할 일이 생겼다. 이번에는 아내가 아예 미리 이야
기를 했다. “여보, 오늘 미장원에 다녀와도 되지
요? 나는 언제 당신 사랑을 받아 볼까요?” 그렇게

서울교회 각 가정의 천국화를 위하여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송길원 목사

(94 가족수련회 강사,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장)

직접적인 표현까지 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
은 ‘이번에는 절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면서 아내에게 미장원에 ‘꼭’ 다녀오라고 돈까
지 쥐어주며 출근을 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급한
일이 생겨 부인은 그만 미장원엘 가지 못했다.

그날 오후. 귀가한 남편이 들어서자마자 하는
첫마디 “여보! 당신 머리 부드럽고 차-밍하다. 정
말 멋있어.”

가정의 비극은 언제나 ‘무관심’으로부터 시작

된다. 이번 서울교회의 '94전교인 가족수련회 기
간 중에 관람했던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
서 나타난 문제도 기실은 여기에 있다. 일에 바쁜
남편으로부터 내팽개쳐진 아내는 끝내 가출이란
극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찾아나서게 된다.
가정보다 일을 우선하던 남편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장면은 매우 감동적이다. 그러면서
도 가슴저뼀던 것은 부모의 갈등 속에 희생 당하
는 아이의 모습이다.

가정이 행복해지 위한 중요한 열쇠가 있다.

작은 관심을 보이는 일이다.

“여보! 정말 멋있어.”

“당신이 더 멋진걸요!”

“그래서 우리는 잘 어울리는 한쌍이잖아, 안그래?”

“그렇구 말구요.”

한마디의 말이 ‘살 맛’을 주는 것이다.

◆ 아직 남은 수련회 이야기 ◆

전가족이 내 가족!

양 주 화 (10교구)

서울교회에 출석한 지 1년도 채 안된 내게 성도와의 교제란 안면이 있는
몇몇 분들과의 눈인사가 전부였다. 더구나 교인이 내 가족이라는 개념은 전
혀 없었다. 많은 성도들은 해를 거듭하여 왔던 곳이라 새로운 느낌이 없었
던 모양이지만 삼척대학교의 규모와 형언하기 힘든 맑은 공기가 수련회에
처음 참석하는 내게는 새롭고도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띄우며 좋아하는 성도들의 어린아이같은 모습. 민기만 하면 거저 주시
는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애쓰는 봉사
의 손길로 인한 혜택을 값없이 누리며 멋진 프로그램들을 한층 더 깊게 향
유할 수 있음이 감사하기만 했다. 다른 사람의 삶에도 기도로 동참할 수 있
음을 알았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결단의 밤에는 형편상 함께 오지 못한 남편은 내 마음에, 그리고 두 딸은
가슴에 안고 주님의 은혜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감사를 드렸다.
믿음 안에서 형제들, 너무도 많은 가족들, 그 사랑, 은혜, 섬김의 손길들...

이쉬움 속에 수련회가 끝났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주님을 섬기듯 주
님께서 주신 내 가정을 소중히 지켜가는 일, 그리고 한 가족된 교우들과 협
력하여 우리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지체로서의 일들이.

“바라는 배필”에서 “돕는 배필”로

서 경 숙(집사, 11교구)

주로 가정 문제를 다룬 이번 수련회에서 내 남편과 자녀들에 대해 평범
한 진리에 대해 새로이 발견하고 구체적인 결심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한
다. 남편의 고집에 대해 항상 일방적으로 상처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
졌었는데 남편을 대할 때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며 복잡함으로써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남편 또한 무언가 깨달음과
결심이 있었던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눈을 찡긐해 보였다.

주 안에서 사랑은 감정보다 많은 의지가 동반되어야 함을 알았고 온유
와 겸손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배웠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여름의 질푸른 나무들처럼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더욱 성숙할 것과 내 자신이 먼저 주님의 은총
속에서 깨지고 녹아져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리라는 결심과 간구를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
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우리는 서로에게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을 채우도록 만나
게 하신 ‘돕는 배필’임을 새롭게, 정말 새롭게 깨달았던 수련회였다.

■ 교우동정 ■

- 신순우 집사는 1일(월)에 농수산부 국립잠사소장에 취임했다.
- 박민호 집사는 분당에 식당「무지개」를 열고 지난 4일(목)에 개업예배를 드렸다.
- 유윤진 장로는 4일(목)에 한양대학교 산업미술대학 학장으로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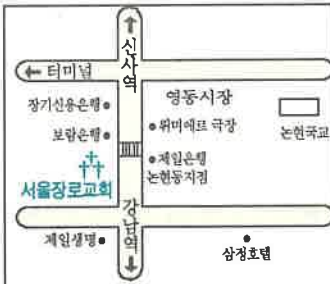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찬 양 예 배	III부	오후 2시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이 여름에 주님께 받은 은혜와
나아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결실하게 하옵소서.
2. 학업 중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천국시민으로 양성되게 하옵소서.
3. 제 6학기목회자세미나를 잘 준비하게 하옵시고
이 일이 한국교회의 갱신에 기여하게 하옵소서.